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Historicism)의상에 관한 연구

朴潤貞·楊淑喜*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Historicism Fashion of Century-end

Yoon-Jeong Park and Sook-Hi Yang*

Graduate School,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explaining the Historicism as a result of compromise, historical eclecticism, between historical things and current cultural background instead of regarding it as an imitation from the past. It means that external factors in history help internal esthetic value surface out as costume. Fashion's history is more than the classified thing according to the appearanc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Intrinsic cultural elements should be added in creating new fashion. One of the different features between Modernism and Post-modernism. When coming to the period of Post-modernism, it connected with the historical factors to make something new by fragmenting, magnifying, or minimizing them. This is called "Historicism" in the world of art. It revived the past, not the past itself, in new ways: quotation, reuse, metaphor, and mixture. To represent the image, parody, pastiche, or bricolage was usually used. In post-modernism fashion, parody is a technique for imitating the past or the preceding forms with artists' own critical points of view. This technique gives us shock or surprise by using satirical, ironical or paradoxical expressions, pastiche shares the same part with parody in imitating particular or unique style, and it can be renamed empty parody, because it doesn't have any hidden motivation or satirical impulse. bricolage is a mixture of quotations from other works. It contains fragments that deepen the image. Like the techniques uttered above, the revival of history through parody, pastiche or bricolage is historical eclecticism and it is included in Historicism.

I. 서론

1990년대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것은 분명 종말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

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의(ism)가 범람하게 되면서,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반면, 자아의 개념이 붕괴되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20세기의 세기말적 현상은 자아의 정체성이나 확실성이 붕

* 이 논문은 199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

피된 근원없는 현대성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렇게 분열된 주관성은 문화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즉 1990년대에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지나간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대 의상에서 복고풍이 유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의 의상을 세기말 패션이라 규정하고, 20세기말에 유행하였던 의상을 과거의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위하여, 먼저 역사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세기말 의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기말의 현상

의상은 사회, 문화속에서 개인의 내적 욕구와 미의식을 표현하는 조형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끊임없이 의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기말(Century-end)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상황은 의상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이미 1880년대에는 당대의 심미적 쾌락주의를 데카당스(decadence)¹⁾라 하여 19세기의 불안하고 불투명한 사회상황을 묘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등장한 19세기말의 상징주의 예술양식은 인간의 의식구조와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²⁾. 자본주의의 성숙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은 세기말의 불안하고 도피적이며, 공격적인 예술을 가능케 하였고 이러한 상징적 예술은 세기말적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³⁾ 1990년대에 나타난 세기말적 현상으로는 기존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으로 등장한 윤리 도덕의 타락과 그에 따른 성도덕의 문란 그리고 쾌락과 향락주의의 만연으로 문화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좀 더 극단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⁴⁾. 즉 대중들은 좀 더 자극적인 패

션을 추구하게 되면서, 의상은 변화하게 되고 이것은 세기말로 갈수록 더욱더 극단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세기말은 그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 그리고 지나간 세계에 대한 회의와 향수를 불러일으켜 복고풍 의상이 등장하게 된다⁵⁾. 특히 20세기말에는 세기말의 영향으로 등장한 역사주의 의상이 패션의 지배적인 테마가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된 새로운 역사적 철충주의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III. 역사주의의 발전과정

1. 역사주의(Historicism)의 개념

역사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해석은 동,서양 모두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투스(Herodotus)의 "historia"에서 역사는 사실의 발견과 탐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대의 단순한 역사개념은 중세의 유대적 기독교적 역사사상과 19세기 헤겔의 역사철학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역사 전체를 어떤 목적을 위해 활약해온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이 유기체의 발전 과정을 칸트처럼 인류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실현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칸트는 역사를 과거에 일어난 일 또는 그 일에 대한 기록으로 분류하였으며, 역사학은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과거를 판단하고 현재에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⁶⁾. 크로체(B. Croce)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⁷⁾라고 주장하였으며, 콜링우드(R. G. Collingwood)는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이며 역사학이란 과거의 역사를 연구중인 역사가의 사상을 현재의 그의 마음속에 재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⁸⁾. 19세기의 주류적 역사상 및 인식의 발달로

1) Hauser, A., 백확창, 영부문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현대편, 창작과 비평사*, 1974, p. 187.

2) 이창윤, 19세기 상징주의 회화와 신화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 3-5.

3) 안선경,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개념, *한국의류학회지*, Vol. 19, No. 2, 1995, p. 179.

4) 양숙희, 유럽 상징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 12-14.

5) 배수정, 근세이후 여성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2권 1호, 1991, pp. 126-127.

6) Stern, F., *The Varieties of History : From Voltaire to the Present*, Cleveland, Ohio, 1956, p. 57.

7) Croce, B., *History as the Story of Liberty*, London, 1941, p. 19.

8) Collingwood, R.G., *The Idea of History*, Oxford, part V, sections 4-5. 1946.

서는 전반기의 역사주의적 사상과 헤겔의 관념주의적 역사상 그리고 후반기의 물질주의적 역사 인식과 자연철학적 실증주의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역사주의란(Historicism)란 과거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의 개별적, 일회적인 고유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실 그대로 즉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속에서 규명함을 원칙적으로 하는 연구 태도이며, 사상적 의미에서의 이 개념은 모든 사물을 생(生)의 끊임없는 생성 변화의 흐름속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이성주의적, 자연법적 사상을 거부하는 세계관을 의미한다⁹⁾. 이러한 역사주의 학풍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인물은 헤르더(Herder)였다. 헤르더는 “인류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역사철학에서 민족과 시대는 그들 자체가 갖고 있는 내면적 가치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몽주의의 보편적이고 통일된 하나의 가치관 대신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는 역사주의의 예를 주장하였다¹⁰⁾. 역사주의란 표현은 하나의 입장을 식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발 해야하는 주의(-isme)에 속한다¹¹⁾. 역사주의라는 말은 체계적 사고와는 구별되는 대립적인 유형의 사고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개념과 규범의 역사적 다양성과 상대성 때문에, 과학적 혹은 철학적 세계 해석에 있어서의 보편적이고 타당한 체계의 기준을 거부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학문적으로 역사주의는 자연과학적 방법과 실증주의의 일반화적 방법을 거부하며, 오히려 과거 사실의 의미를 해당시대의 역사적 조건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역사적 비판적 방법을 통해 과거 사실의 역사성을 해명하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역사 연구 발전에 공헌하였다¹²⁾. 이러한 역사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199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론은 21세기 역사

연구를 위한 좀 더 긍정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2. 20세기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주의

20세기 말엽 역사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의상에서 좀 더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역사학에 대한 비평과 불만을 터뜨려 왔으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¹³⁾. 초기 포스트모던 주의자들은 역사적 지식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극단적인 회의론을 받아들였으며, 이성과 진보의 개념보다는 역사에서 비합리성 또는 특수성, 신비성 등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것은 20세기 말엽 역사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리잡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역사주의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20세기의 새로운 역사관은 이전의 역사관에서 보여주었던 핵심적인 서사(grand naarrative)보다는 사소하거나 의미 없다고 여겼던 주제들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역사적 분위기는 1990년대에 이르러 의상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의상은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을 빌어 외복이라는 내적 미의 가치를 표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의상에서 역사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되는 시대적 양식을 구분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적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어떻게 의복이라는 새로운 조형요소에 새롭게 구현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¹⁶⁾. 여기서 양식이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인간과 사회, 민족, 시대에 따른 특징적인 행동과 생활의 수단, 집합적인 정신의 표현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문화의 개념이다¹⁷⁾. 즉 20세기 의상에 나타난 역사주의는 모더니즘 이후 패션의

9) 김영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의 역사, 학문사, 1988, p. 27.

10) Schnedelbach, H., *Geschichtsphilosophie Nach Hegel*, 이한우역, 문예출판사, p. 27.

11) *Ibid.* p. 21.

12) 이상신, 역사학대론-역사와 역사학, 도서출판 신서원, 1994, pp. 264-265.

13) Appleby, Hunt and Jacob, *Telling the Truth*, p. 236.

14) Evans, R., In Deffence of History, 이영석 옮김, 소나무, 1998, pp. 315-319.

15)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Ⅱ), -반미학과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 복식 제38호, 1998, p. 376.

16) Ackerman, J., *A Theory of Style*, cited in Beardsley, M., *Aesthetic Inquiry : Essays on Art Criticism and the Philosophy of Art*, Dickenson, 1967.

불안정성, 불연속성 그리고 다원성을 배경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적 범주로 보고 이것을 단순한 역사의 모방이 아니라, 역사적 아이템을 이용하여 현재의 문화적 배경에 알맞게 절충시킨 역사적 절충주의(Historical Eclecticism)로 보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추상적 경향에 의해 결여되어왔던 예술의 상징성을 과거의 역사적 요소를 참조하고 이들을 해체, 과장, 축소함으로써 새롭게 창조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예술분야에서는 “역사주의”로 표현되었다. 20세기 말의 새로운 역사주의적 경향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현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 때 복고의 유형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새롭게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미지는 주로 패러디(parody)¹⁸⁾와 혼성모방(pastiche)¹⁹⁾ 그리고 브리콜라주(bricolage)²⁰⁾에 의해 이루어진다²¹⁾. 이와 같이 의상에서 역사를 패러디나 혼성모방 또는 브리콜라주를 통해 재현한 것을 역사적 절충주의라 하는데, 이것은 20세기말, 역사주의의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보다 큰 의미의 역사주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주의는 과거의 예술을 내포하고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와 포스트모더니즘이 결합된 역사적 절충주의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IV.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

역사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타 문화 예술에서는 대중 문화의 확산시기라 간주되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분하지만 실제로 의상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²²⁾. 왜냐하면 역사라는 연결된 고리에서 연장을 뜻할 수도 있으며, 또 반동의 개념을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적 절충주의의 예로 제시한 페러디와 혼성모방의 경우도 페러디는 모더니즘의 그리고 혼성모방의 경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페러디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혼성모방과 함께 모방과 풍자, 그리고 유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상에 있어서도 복고풍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의상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보편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주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이것은 예술의 미적범주와 사회, 역사적 사건들과 일치하는 문화적 현상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20세기말의 대표적인 의상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파악하려는 역사적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은 고대 로마의 toga에서 부터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기를 의상의 테마로 삼고 있다. 먼저 1990년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1, 2 참고)

1. 1990년대 전반기의 의상(1990~1995)

1990~1991년의 의상은 1980년대말의 뒤를 이어 자연주의적인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과장된 실루엣이나 강력한 색채보다는 소박하고 전원적인 소재가 유행하였다.

1992년에는 다시 근세시대의 낭만주의 양식을 토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였는데 다시 어깨를 강조하고 허리틀 가늘게 줄라메는 X자형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로맨티시즘은 세기말

17) Genova, J., The Significance of Style, *J.A.A.C.*, 37(3), 1979.

18) 패러디(Parody) : 패러디란 원래 모더니즘 사회의 예술을 표현하는 급진적인 예술 비평의 한 형태인데, 이것은 과거의 선행양식을 모방할 때 풍자나 아이러니 또는 패러독스 한 표현방법을 통해 충격과 의외성을 주는 새로운 창작기법이다.

19) 혼성모방(Pastiche) : 혼성모방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대표적인 예술양식으로 패러디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스타일의 모방이지만 이 경우 패러디에 숨어 있는 동기나 풍자적 충동은 전혀 없는 공허한 패러디이다.

20) 브리콜라주(Bricolage) : 브리콜라주는 하나의 작품에 다른 작품들로부터 인용한 부분들을 서로 결합시킨 것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이미지의 파편들을 수집하여 만든 것이다.

21)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 20.

22) 김민자, *op. cit.*, 1998, p. 105.

<표 1> 1990년대 전반부의 의상

년 도	디자이너	시 대	디자인 아이템	참고문헌
1990~1991			Naturalism 자연적인 소재 Ethnic look	Mode et Mode
1992	V. Garavani Gres Martine Sitbon V. Westwood	Renaissance (16c) Rome 1870~1890 (19c) Renaissance (16c)	Stomacher Toga Bustle Decolletre Robe	Mode et Mode
1993	Gres C. Dior V. Westwood J. Galliano J. Galliano P. Balmain C. Montana	Rome Baroque Renaissance Rococo Rococo Napoleon I 왕정복고시대	Toga ruff & whisk Stomacher Justaucorps Redingote jabo & frac frac	Mode et Mode
1994	J. L. Scherrer E. Ungaro L. Feraud	Baroque Baroque Napoleon I	ruff collar ruff collar leg of mutton S	Mode et Mode
1995	V. Garavani Nina Ricci V. Westwood V. Westwood	Napoleon III Rococo Baroque Napoleon I	Crinoline Robe a la francaise Peplum Incroyable	Mode et Mode

<표 2> 1990년대 후반부의 의상

년 도	디자이너	시 대	디자인 아이템	참고문헌
1996	Christian Lacroix Givenchy Givenchy Paco Rabanne V. Westwood	Renaissance 1920년대 Napoleon I Medieval (Gothic) Rococo	Stomacher Flapper Style Empire Dress Houppelande Robe	Mode et Mode
1997	Y. Saint Laurent Christian Lacroix Givenchy Thierry Mugler	Rococo 19세기말 Renaissance Baroque	Watteau Gown Bustle Corps-Pique Stomacher	Mode et Mode
1998	Givenchy V. Westwood V. Westwood J. P. Gaultier C. Dior	Romanesque Rococo 19세기말 Rococo Bell Epoque	Tunic, Bliaud Robe Bustle Justaucorps Kimono coat	Mode et Mode Collezioni
1999	Viktor & Rolf J. Louis Scherrer Thierry Mugler Christian Lacroix Givenchy	Baroque 왕정복고시대 Napoleon III Baroque Renaissance	Ruff, Justaucorps Romantic style Crinoline Peplum, Stomacher Stomacher	Mode et Mode Collezioni

역사주의의 테마로서 현대의 단순미와 조화되어 '90년대 패션의 주요 경향이 되고 있다²³⁾,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V. Garavani, Gres, V. Westwood 등이 있다. V. Garavani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용 가슴장식인 스토마커(Stomacher)를 재현하였는데 이것은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를 넓게 퍼뜨린 대표적인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이다(그림 1). Gres는 고대 로마시대의 토가(Toga)를 혼성모방 하였는데 어깨부터 스커트의 밑단까지 연결된 긴 주름은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2). V. Westwood는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용 로브를 재현하였는데, 가슴을 데꿀때시킨 스페어 네크라인이 잘 나타나 있다(그림 3).

1993년에는 고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19세기 등 다양한 역사주의 의상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Gres, C. Dior, J. Galliano, V. Westwood, P. Balmain, C. Montana 등이 있다. 먼저 Gres는 1992년대에 이어 93년에도 고대 로마의 토가를 응용한 드레스



<그림 2> Gres, Toga(*Mode et Mode*, 1992)



<그림 1> Valentino Garavani(*Mode et Mode*, 1992)



<그림 3> Vivienne Westwood, Robe(*Mode et Mode*, 1992)

23)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p. 209.

를 디자인하였는데, 토가 특유의 주름과 함께 색채도 흰색을 사용하여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C. dior은 바로크 시대의 러프와 위스크칼라(whisk collar)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는데, 이 때 러프와 위스크 칼라는 바로크 시대의 분위기와 감각을 느낄 수 있다(그림 4). V. Westwood도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스토마커를 재현하고 있으며, J. Galliano는 로코코 시대의 쥐스토코르나 르덴고뜨를 응용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그림 5). P. Balmain과 C. Montana는 19세기의 나폴레옹1세 시대와 왕정복고 시대의 의상을 재현하였는데, P. Balmain의 자보(jabo)나 프락 아비에(frac habille)는 나폴레옹 1세가 주로 착용하였던 의상이었으며, 당시의 남성복은 현대의상에 그대로 응용되고 있다(그림 6). C. Montana역시 왕정복고 시대의 남성의복인 프락에서 영감을 받아 둥근칼라와 허리를 강조한 스타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7).

1994년에는 주로 바로크와 19세기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특히 J. L. Scherrer는 리프칼라를 응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소개하였는데, 러



<그림 5> John Galliano, Justaucorps(*Mode et Mode*,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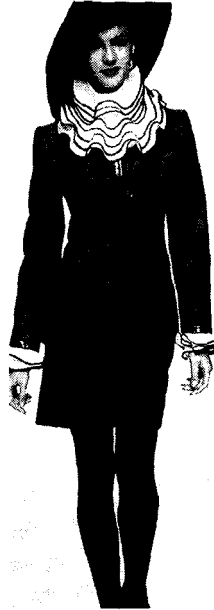
<그림 4> Christian Dior, Ruff & Whisk (*Mode et Mode*, 1993)



<그림 6> Pierre Balmain, Jabo & Frac (*Mode et Mode*, 1993)



<그림 7> Claude Montana, Frac(*Mode et Mode*, 1993)



<그림 8> Jean Louis Scherrer, Ruff(*Mode et Mode*, 1994)

프의 딱딱한 느낌에서 탈피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여성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하였다(그림 8). E. Ungaro역시 바로크 시대의 러프 칼라에 관심이 많아 여성적인 느낌의 러프 칼라를 디자인하였다(그림 9). L. Feraud는 나폴레옹1세 시대에서 왕정복고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의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특히 어깨를 강조한 네크라인과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는 왕정복고 시대에서 가져왔으며, 하이웨이스트 라인은 나폴레옹 1세시대의 앵파이어 드레스에서 차용해온 것이다(그림 10).

1995년은 94년의 뒤를 이어 바로크와 로코코 그리고 19세기 초기의 의복을 재현하였다. 이 당시에는 Nina Ricci, V. Garavani, V. Westwood 등이 역사주의 의상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Nina Ricci는 로코코시대의 여성 로브인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caise)의 앞 가슴 장식인 리본을 그대로 혼성모방 하고 있다(그림 11). V. Garavani는 19세기의 크리놀린을 심플한 라인으로 패러디하고 있으며(그림 12), V. Westwood는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에 달렸던 페플럼(pep-



<그림 9> Emanuel Ungaro, Ruff(*Mode et Mode*, 1994)



<그림 10> Louis Feraud, Leg of mutton S
(*Mode et Mode*, 1994)



<그림 12> Valentiono Garavani, Crinoline
(*Mode et Mode*, 1995)



<그림 11> Nina Ricci, Robe a la Francaise
(*Mode et Mode*, 1995)

lum)장식을 패러디하고 있다(그림 13). 그녀는 또한 19세기초의 사회적 변화를 잘 나타내 준 남성복 앵그르와야블(Incroyable)의 험령한 칼라나 장식을 1995년대 여성의 원피스 드레스에 응용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여성들의 의복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것 같아 19세기의 시대정신과도 일치 한다.

2. 1990년대 후반기의 의상 (1996~1999)

1900년대 후반기의 의상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를 말하며, 이 시기의 의상은 전반기 디자인에 영향을 받아 받아 완성해가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1996년 이후부터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은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패러디하거나 혼성모방하는 역사적 절충주의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6년 C. Lacroix가 재현한 르네상스 시대의 스토마커는 보석장식으로 한층 화려해진 형태를 볼 수 있다(그림 14). 또한 Givenchy는 19세기의 나폴레옹 시대의 엠파이어 드레스(그림 15)와 1920년대의 플래퍼(flapper)스타일을



<그림 13> Vivienne Westwood, Incroyable
(*Mode et Mode*, 1995)



<그림 15> Givenchy, Empire Dress(*Mode et Mode*, 1996)



<그림 14> Christian Lacroix, Stomacher
(*Mode et Mode*, 1996)

다시 재현하였는데, 모두 당시의 드레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하다. 특히 스커트에 비치는 얇은 소재의 직물은 엠펙이어 스타일을 그대로 혼성모방한것 같다. Paco Rabanne은 중세말기의 남성의복인 우펠랑드(houppelande)를 응용하여 화려한 여성의복으로 전환시켰는데, 높이 올라온 스탠딩 칼라와 폭넓은 주름은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하다(그림 16). V. Westwood 는 과거의 역사적인 의상을 현대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역사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작품경향은 당시의 패션흐름과 전체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V. Westwood 자신도 “현재 나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데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타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²⁴⁾. 그 중에서도 그녀가 발표한 18세기 로코코 스타일 중 여성의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caise)는 각 시대별로 변화를 주

24) 엄혜정,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복식 37호, 1998, p.77.



<그림 16> Paco Rabanne, Houplande
(*Mode et Mode*, 1996)



<그림 17> Vivienne Westwood, Robe(*Mode et Mode*, 1996)

면서 재현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역사적 아이템이다. 1996년에 발표한 스타일은 여성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인데 앙가장트 소메나 리본으로 장식된 스토마커 그리고 스웨어로 데콜레 되어 있는 형태는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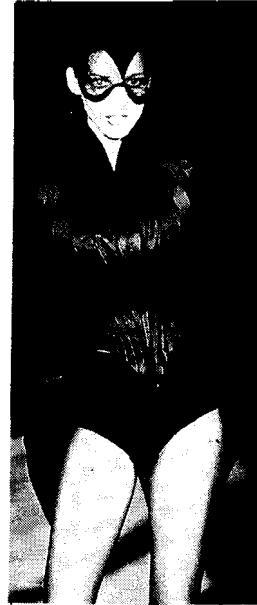
1997년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19세기까지 다양한 시대를 의상의 테마로 이용하였는데 특히 Yves Saint Laurent은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와토 가운(Watteau Gown)에서 영감을 얻어 등에서부터 스커트의 밑단에 이르기 까지 길게 뻗어내리는 주름을 아주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다(그림 18). 색채도 밝은 옐로우 계열의 파스텔톤으로 로코코 시대의 장엄한 분위기 보다는 좀 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다. Givenchy는 16세기 여성의 바디스물 줄라매는 금속제 코르셋인 포르피게(corps-pique)를 리바이벌 하였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성용 속옷으로 포르피게를 먼저 착용한 후 겹옷을 입었으나, Givenchy는 바지 위에 블라우스를 착용하고 그 위에 겹옷으로 착



<그림 18> Yves Saint Laurent, Watteau Gown(*Mode et Mode*, 1997)



<그림 19> Givenchy, Corps-Pique(*Mode et Mode*, 1997)



<그림 20> Thierry Mugler, Stomacher(*Mode et Mode*, 1997)

용하였다(그림 19). Thierry Mugler 또한 16세기의 앞이 뾰족한 스토마커를 현대적으로 패러디하였다(그림 20).

1998년은 역사주의 의상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Givenchy, V. Westwood, J. P. Gaultier, C. Dior 등이 활약했던 시기이다. 먼저 Givenchy는 역사적 이미지를 주로 중세에서 가져왔다. 그는 중세 로마네스크 시대의 블리오(Bliaud)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그림 21>은 중세 블리오의 특징적인 소매를 응용하고 있으며, 실루엣 또한 마치 코르사쥬를 착용한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Givenchy는 중세의 의상을 패러디하여 디자인 할 때 디자인면에서는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의복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반면 의복의 색채나 질감 면에서는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매치시켜 중세의 암울하고 엄격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우아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V. Westwood는 19세기의 버슬 스타일을 혼성모방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힘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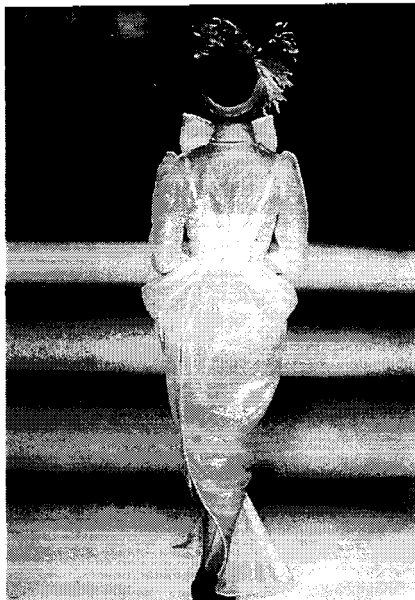


<그림 21> Givenchy, Bliaud(*Collezioni*, 1998)

나라 버슬 버탑대(tournure)를 만들어 현대 의상에 표현하였다(그림 22). J. P. Gaultier도 세기말의 패션테마로 역사주의 의상을 연구하였다. 그가 선택한 역사적 테마는 18세기 로코코 시대로 V. Westwood와는 상당히 다르게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8세기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다소 엄격한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여성 의복에서는 로브(Robe)나 빠니에(Panier)를 혼성모방하였고, 남성복에서는 쥐스토코르프(Justaucorps)나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a la Francaise)의 형태를 페러디 하였다 (그림 23). 특히 남성복 상의인 쥐스토코르프는 카뮤플라주 프린팅(camouflage printing)을 이용하여 세기말의 전쟁이나 종말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C. Dior은 1910년대의 벨 에포크 스타일을 혼성모방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럽에 영향을 미쳤던 동양풍의 색채나 직물디자인등이 잘 나타나 있어 의상의 새로운 아이템으로써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게 해준다. <그림 24>는 기모노 코트 스타일을 혼성모방한 것으로 디자인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직물의 문양까



<그림 23> Jean Paul Gaultier, Justaucorps(Collezioni, 1998)



<그림 22> Vivienne Westwood, Bustle (Collezioni, 1998)



<그림 24> Christian Dior, Kimono coat (Collezioni, 1998)



<그림 25> Viktor & Rolf, Ruff(*Mode et Mode*, 1999)

지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모노 코트 스타일은 동양풍의 색채와 함께 세기말의 신비주의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1999년은 Viktor & Rolf나 Jean Louis Scherrer, Thierry Mugler 그리고 C. Lacroix 등의 디자이너들이 역사주의 의상을 내놓았다. Viktor & Rolf는 바로크 시대의 러프나 퀴스토코르를 패러디하였다(그림 25). J. L. Scherrer는 왕정복고 시대의 로맨틱 스타일을 그리고 Thierry Mugler는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크리놀린을 패러디하고 있다. C. Lacroix는 18세기 로코코시대의 퀴스토코르나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페플럼 그리고 스토마커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세기말의 의상은 새로운 문화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좀 더 극단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내면에는 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자리잡

게 되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의상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아이টে임을 응용할 때 각 디자이너의 영감에 따라 같은 시대의 의상에서도 서로 다른 느낌의 분위기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주의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상대성 때문일 것이다. 역사주의는 체계적인 사고와 구별되는 대립적인 유형의 사고 형태이면서 모든 개념과 규범의 상대성 때문에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응용하여 의상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회고와 향수로 과거의 의상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감에 따라 역사적 아이টে임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세기말의 역사주의 의상을 분석해 본 결과 1990년도 중에서도 1994년부터 역사주의 의상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시대별로 보면 19세기 의상이 가장 많이 재현되었다. 그 다음이 바로크, 로코코, 르네상스였다. 아이টে임 별로 보면, 19세기의 의상은 19세기초인 나폴레옹1세 시대의 남성복인 자보(jabo)나 프락(frac) 또는 앵그르와야블(Incroyable) 그리고 여성의 엠파이어 드레스가 이용되었으며, 1870년대의 비슬 스타일도 많이 나타났다. 바로크 시대는 러프 칼라와 페플럼등이 많이 나타났으며, 로코코시대는 여성용 로브인 로브 아 라 프랑세즈가 가장 많이 재현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스토마커가 가장 많이 패러디 되었다. 역사주의 의상을 가장 많이 디자인한 디자이너로는 Vivienne Westwood이며, 이 밖에도 John Galiano, Valentino Garavani, Christian Lacroix, Givenchy, Jean Paul Gaultier, Christian Dior, Thierry Mugler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1990년대의 세기말 의상은 역사주의라는 현대 패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디자이너 스스로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예술영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역사주의 의상을 분석하고 각 시대별 아이টে임을 분석해봄으로써 다가올 2000년대 패션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Ⅱ) - 반미학과 열린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제38호, 1998.
- 김영진, 역사의 이해 - 동아시아 역사, 학문사, 1998.
- 배수정, 근세이후 여성 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에 관한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권 1호, 1999.
- 안선경,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2호 1995.
- 안향신,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양숙희, 유럽 상징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석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염해정,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와 미적특성, 복식 제 37호, 1998.
- 이상신, 역사학개론 - 역사와 역사학, 도서출판 신서원, 1994.
- 이창윤, 19세기 상징주의 의화와 신화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Ackerman, J., A Theory of Style, cited in Beardsley, M., Aesthetic Inquiry : Essays on Art Criticism and the Philosophy of Art, Dickenson, 1967.
- Collingwood, R.G., The Idea of History, Oxford, part V, sections 4-5, 1946.
- Croce, B., History as the Story of Liberty, London, 1941
- Evans, C., & Thomson, M., Women & Fashion, Quartet Book, London, 1989.
- Evans, R., In Deffence of History, 이형석 옮김, 소나무, 1998.
- Genova, J., The Significance of Style, J, A, A, C., 37(3), 1979.
- Hauser, A., 백락청, 염무문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현대편, 창작과 비평사, 1974.
- Hunt and Jacob, Telling the Truth, Apple, 1987.
- Schnadelbach, H., Geschichtsphilosophie Nach Hegel, 이한우역, 문예출판사, 1986.
- Stern, F., The Varieties of History : From Voltaire to the present, Cleveland, Ohio, 1956.